

세계 한인 동포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우범기 시장, 유럽 한인사회와 유치 공감대 형성·협력 체계 강화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지난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유럽을 순방 중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태정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이 유럽 내 한인 사회 및 기업인들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유럽 각지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한인 동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올림픽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실제로 우범기 시장은 지난 7일과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박종범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과 유럽한인총연합회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연대와 환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올림픽으로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3일 유럽을 순방 중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태정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이 유럽 내 한인 사회 및 기업인들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에 월드옥타와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월드옥타는 6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유럽지역경제인대회와 10월 인천에

서 열리는 한인경제인대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유럽한인총연합회 총회를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해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및 하노이한인회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다졌으며, LA한인회와도 청소년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인사회로부터 올림픽 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938년 베를린을 탈락에서 손기정 용이 따낸 금메달이 해외 동포에게 큰 힘이 된 것처럼, 고국에서 올림픽이 다시 열린다면 세계 각지의 한인 동포들의 자존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방연대로 치를 올릴수록 해외 동포들과의 끈끈한 연대로 함께 유치를 나가기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전주상공회의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지역 탄소기업이 참여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전주상공회의소 빈지회 현관식 △폴란드 탄소복합재 기술센터와의 간담회 △폴란드 제수프시와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기업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권희성 기자

폐지수거 노인에 시원꾸러미 전달

전주시, 시원한 여름나기 위한 물품 배부

전주시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활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해 총 63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220개)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시는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저소득 재활용품(폐지) 수거 노인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넥선종기와 쿨타올, 쿨토시 등의 안전용품들 '시원꾸러미'로 구성해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완산·덕진구청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폐지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지수거 노인들을 위해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 11월에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폐지수거 노인들을 위한 방한복 205벌(환가액 729만원)을 전달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안전을 위해 야광조끼와



야광봉 등 안전용품 300개를 업체로부터 후원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전주시 종남동에 거주하는 한 폐지수거 노인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위가 더 빨리 찾아와 긴 더위로 더 힘들었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폭염대비 시원꾸러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밑그림 완성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당선작 선정

전주시가 지역사회 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해 건립할 공공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시는 지난 11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당선작은 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과 도심 속 포근함을 갖도록 설계된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주)길종합건축사사

무소이엔지에는 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 노숙인시설 '전주 사랑의 집' 부지내에 별도로 건립되며,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의 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에는 △치매전담실(36인) △일반요양실(64인) △주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및 의료실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투시도.

들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향후 이곳이 전주의 치매 환자 돌봄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통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우아1동 상가번영회·종로반점, 사랑의 중식 봉사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동장 송정하) 상가번영회(회장 박균성)는 지난 12일, '종로반점'에서 4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중식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다가오는 폭염을 이겨 내자는 취지로 종로반점과 우아1동 상가번영회에서 짜장면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떡, 과일, 음료수 등과 함께 대접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종로반점에 모인 우아1동 상가번영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 50여 명은 식사 준비와 배식을 맡아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적극 도움을 실천했다.

우아1동 자율방범대로 동참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 교

통정리 봉사를 하는 등 우아1동 자생단체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이창립 종로반점 대표는 "짜장면 한 그릇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봉사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균성 우아1동 상가번영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선물해 주신 종로반점과 상가번영회, 부녀회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우아1동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삼천3동 새마을부녀회, 찰밥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서향)에서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가득한 찰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 부녀회 2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찰밥, 김치 등을 손수 정성껏 조리하여 관내 취약계층 25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훈훈한 이웃사랑



을 실천했다.

삼천3동 새마을부녀회 최서향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새마을부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